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의 시작

● 엄혁주 (김포서동중학교 교사)

얼마 전 우리 반 학부모가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건강이(가명)가 자꾸 친구들을 때리고 못살게 군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먼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애 아빠가 멀리 지방에 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주말이면 건강이와 이디든 가려고 노력해요.”

“평일에는 자주 대화를 하시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일찍 올 때는 공부도 봐주고 대화도 하는 편이에요.”

“그럼, 건강이와 아버지는 자주 통화를 하나요?”

“통화는 거의 못해요. 대신 만나면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캠프를 가기도 해요.”

이러한 대화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를 외치며 산으로, 들로 떠납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가족들은 다시 빨이 흩어져 각자의 삶에 파묻히게 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가족의 소중함

올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무려 15일 동안이나 지속된 폭염으로 전국이 마치 용광로처럼 찢쩍 끓었습니다. 낮에는 평소 시원한 그늘에서 쉬거나 가볍게 운동하려 나오던 이들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온이 평상시보다 몇 도만 더 올라가도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풀무물은 어떻겠습니까? 풀무물은 터워서 못 참을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열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사드라, 메사, 아벳노고는 왕에게 잘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풀무불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불길 속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불 속에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곧 에덴(Eden)이고 기쁨(delight)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서로 믿고 몸과 마음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한, 가정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심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힘들고 비싼다는 핑계로 평상시에는 오히려 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켜다 시간이 남으면 함께 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가정에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레저 활동일까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딘가 멀리 떠나서 레저 활동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고단한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느끼는 평안함, 이러한 소중한 행복을 가정에서 안게 될 때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가족 구성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는 여유를 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거리감이 생겨 가정 안에서 평인과 숨을 얻고 사랑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내어 가족 간에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간의 대화

가족 범죄나 일탈 등은 최근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단골 화제입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화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가족 구성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는 여유를 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도 가족 간에 대화를 나누어야 하지만, 정작 시간이 나타나도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우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에 거리감이 생겨 가정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얻고 사랑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일을 이루면 사람 뒤에는 항상 그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가족이 있었음을 간파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지지받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내어 가족 간에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대화에는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가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서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나누는 농담, 장담, 논쟁 등 모든 종류의 대화는 정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담을 하면 농담하는 사람의 웃기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듣는 사람의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리는 등 부드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반면 그 의도가 어긋나 듣는 이가 언짢은 기분을 느낀다면 상황은 원전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유발된 정서는 상황을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눈과 몸으로, 말을 하면서부터는 가족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바른 자아(being)를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아는 상대방과의 경험을 통해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해간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아 자키호는 여느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성매결절 진단을 받고 중앙 제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후 5년 동안은 말을 하기 어려웠고, 자연히 가족들과 대화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단절로 그녀는 우울증이라는 정서적 질병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가족은 말은 많이 하지만...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던 리아는 카드에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공급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적던 것이 200여 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니다. 그렇게 그녀는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며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보드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언게임(Ur-Game)입니다. 이 언게임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텔미(TellMe) 게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TellMe 게임을 통해, 기록고 가정에서 대화를 통한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Me 게임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길면 길수록 좋겠죠? 우선, 가족 수에 맞게 말(바둑돌, 동전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거나 질문할 때 적을 종이의 필기구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격려, 칭찬, 위로, 공감 등을 느낄 때 붙여줄 수 있는 스티커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TellMe 카드를 준비합니다. 미리 작성된 카드를 사용해도 좋고, 각자 공급한 사항을 카드에 적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나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나요?"
"가족들이 서로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는 편인가요?"
"일들과 어울릴 때 가족에게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레저 활동, 놀이, 운동이 있나요?"
"가족과 같이 어떤 여가-레저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가족들과 같이 하고 싶은 신체활동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2012년도에 꼭 전도하고 싶은 구성원이 있나요?"
"당신의 가족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당신의 가족 모두가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할 적이 있나요?"

준비가 다 끝났으면, 보드판(그림 참조)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게임 방법을 숙지한 후 시작하면 됩니다.



- 1) 각자의 말을 보드의 중앙 출발선에 놓습니다.
- 2) 순서(시계 방향)대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이동합니다.
- 3) "TellMe" 칸에 도착하면, 카드를 뽑아 크게 읽고 2~3문장으로 답을 합니다.
- 4) 자신의 차례나 순서가 아니면 침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함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요.)
- 5) 사용된 카드는 따로 구분하여 둡니다.
- 6) 다른 참가자들의 대답을 잘 듣고 메모해줬다가 "질문과 코멘트" 색 선에서 충분히 활용합니다.
- 7) 한 사람이 "TellMe" 칸에 3번 연속 도착할 경우, 다시 한 번 주사위를 던질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양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에서 TellMe 게임을 활용하여 즐겁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도 공생애(公生愛) 기간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기도)하셨으며, 제자들과도 묻고 답하는 식의 대화를 통해 모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의 취향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녀들은 그냥 따라주길 바라지 않았나요?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남편, 아내, 자녀의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동산임을 잊지 마세요.



영학주 김포서초등학교 교사로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신체활동을 통해 바른 품성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진흥위원회, 한국 칼럼니스트 이사, 경기도 교육청 청의 사생활 평가 개발위원과 김포교육청 수업 혁신 컨설팅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드뷰 WORLDVIEW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제40335호

발행유료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길리네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공동체 - 월드뷰 담당자 앞

□□□□ - □□□□